

우리회의 책토론과 민주적인 의사소통방식

임 미 영(어린이책시민연대)

교육자치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진다. 나와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말이다. ‘교육과 자치’,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보면 그리 어렵고 낯선 말이 아니다. 교육은 일상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며, 자치는 스스로 즉 주체적으로 움직인다는 의미로 지방자치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이기도 하다.

그런데 교육자치라... 곰곰이 생각해보면 교육감을 직선제로 뽑았던 그때부터 교육자치란 말을 들어왔고, 교육자치를 이루기 위한 일들은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그걸 실질적으로 느낄 만큼 교육현장, 즉 학교현장에서 잘 실현되고 있느냐고 물으면 선뜻 대답하기 어렵다.

교육자치는 교육행정을 지방단위로 분리함으로써 각 지방의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지방자치의 핵심이 민주주의의 실현인 것처럼, 교육자치의 핵심 또한 민주주의 실현이다. 교육민주주의, 학교민주주의의 실현은 단위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자치 강화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학교자치란 학교에서 학교 교육 운영의 권한을 갖고, 구성원이 학교의 고유한 교육 과정을 구성, 운영, 평가에 참여하는 것이다. 즉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 과정이 중요하다.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구성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존중하며 동등하게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인 소통방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어린이책시민연대는 매주 모여 책토론을 한다. 함께하는 책임기의 과정은 정해진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가치관과 경험으로 텍스트에 대한 생각들을 나눈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다. 이야기를 통해 서로의 차이를 발견하고, 그 차이는 어디에서 왔는지를 토론을 통해 발견해 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은 누구나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게 된다. 그리고 그 다름의 연유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내 생각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나를 더 탐구하게 되고 내 생각을 더 단단히 함으로 타인을 알고 이해하는 기회가 된다.

토론 시간이 정해져 있어 오래된 회원이나 자기 이야기가 많은 회원 등 소수의 회원이 토론을 주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서로가 조심하며 어떻게 하면 구성원 모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한다. 서로가 적절한 발언시간을 생각하며 이야기한다거나, 발언하지 않는 회원의 의견을 구하는 등 토론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한다. 그리고 발언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는 것이다. 내가 무슨 말을 할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들으며 내가 동의되는 부분은 무엇이며, 동의되지 않는 부분은 무엇인지에 집중한다. 동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덧붙임으로써, 동의되지 않는 부분은 질문을 던지거나 반박을 통해 토론을 더 풍성하게 한다. 같은 말을 반복하며 자기 의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가는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통해 내 생각을 정리하며, 옳고 그름의 잣대가 아닌 사유의 폭을 넓히는 토론을 하려고 한다. 이와 함께 중요한 점이 열린 마음으로 토론에 임하는 것이다.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이고 비판적으로 토론은 진행되어야 하지만, 내가 동의할 수 있는 의견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 전제하지 않으면 상대방 의견을 부정하기 위한 토론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일반화시켜 내 생각이 아닌 남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을 경계한다. ‘요즘 ..들은 이렇다’라는 말은 더 이상 토론이나 사유를 진행할 수 없게 만든다. 내 생각을 이야기하며 구체적

으로 접근할 때 사유가 일어나고 행동의 변화도 일어날 수 있다.

회의도 책토론과 같은 형태로 진행된다.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않고 정해진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으며, 어떤 제안도 할 수 있다. 맞고 틀리고가 아닌 생각과 생각이 만나 더 나은 생각을 만들어내기 위해 서로가 생각이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펼친다. '나의 경험으로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아.'나 '그건 틀렸어'란 말보다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질문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결론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그리고 이 결론 또한 그날의 가장 나은 생각으로,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한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그 전회의의 결론을 바탕으로 다시 논의하기도 한다. 너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있지만, 의견을 나누고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과정은 책토론을 통해 나 자신을 알고 발견해가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 토론이나 회의에서 '나'라는 주체와 타인 즉 구성원들이 만들어내고 모아낸 의견들은 '참삶'을 실천하기 위한 시민단체로서의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나를 알고 타자를 만나,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임을,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이 만나 충돌하고 부딪는 시끄러움 속에서 우리의 생각은 더욱 다듬어지고 공고해질 수 있음을 생각한다.

이런 우리의 방법이 최선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소외되고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누구나 주체적으로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을 드러내는 방법에 대한 고민은 계속될 것이며, 그 속에서 좀 더 자유롭게 소통하게 될 것이다.